

국내외 투자유치 성과와 과제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 기 춘

I. 문제제기

‘우근민 제주도정’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 중의 하나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투자진흥지구 운영 내실화, 영주권 제도 활용, 토지비축제 운영 활성화, 국외 투자유치, 성장유망 국내기업 유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기본목표에 부합되는 추진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의 세부과제별로 지난 3년 간 성과를 평가해 보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개선해야 할 내용을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국내외 투자유치 성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우근민 제주도정’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세부과제별로 성과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제주 투자자에게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되었다. 2005년 7월에 제1호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된 이후 2010년 6월까지 17개 지구 6조 2,776억원(연평균 1조 2,555억원)의 투자사업비가 유치되었고, 그 이후 4조 9,780억원(연평균 1조 6,593억원)의 투자사업비가 유치되어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 이후 연평균 4,038억원(32%) 증가하였다. 투자유치가 실제 투자로 실현된 것을 살펴보면 2010년 6월까지 실제 투자사업비는 연평균 1,946억원이었으나 그 이후 연평균 6,917억원으로 지난 3년 간 연평균 4,971억원(2.6배) 증가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살펴보면 2010년 6월까지 고용인원은 연평균 183명이었으나 그 이후 연평균 430명으로 지난 3년 간 연평균 247명(1.4배) 증가하였다. 건설공사 수주를 통한 도내기업들의 참여를 살펴보면 2010년 6월까지 참여업체는 연평균 131개사에 건설공사 수주액은 연평균 667억원이었으나 그 이후 연평균 112개사 1,253억원으로 지난 3년 간 업체는 연평균 19개사(14%) 감소하였으나 수주액은 586억원(88%) 증가하였다.

5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5년 보유시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는 2010년 2월에 도입되어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에 따른 성과 비교가 어려우나 지난 3년 동안 콘도 409세대 2,657억원의 분양 계약이 이루어져 129억원의 지방세 수입 증대가 발생하였고, 향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F2 비자가 191명에게 발급되었다.

2006년 싱가포르 자본 280억원의 외자유치로 시작된 국외 투자유치를 살펴보면 2010년 6월까지 4개 사업 2조 4,786억원(연평균 6,196억원)이었고, 그 이후 10개 사업 3조 1,940억원(연평균 1조 646억원)의 외자가 유치되어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 이후 연평균 4,450억원(72%) 증가하였다. 외자유치가 실제 투자로 실현된 것을 살펴보면 2010년 6월까지 실제 외자투자는 연평균 114억원이었으나, 그 이후 연평균 1,021억원으로 지난 3년 간 연평균 907억원(8배) 증가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살펴보면 2010년 6월까지 고용인원은 연평균 20명이었으나, 그 이후 연평균 39명으로 지난 3년 간 연평균 19명(95%) 증가하였다. 지방세 수입을 살펴보면 2010년 6월까지 지방세 수입 증대는 연 11억원이었으나 그 이후 연 17억원으로 지난 3년 간 연 6억원의 지방세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이전 성장유망 기업 및 국내 신·중설 기업 유치를 살펴보면 2010년 6월까지 20개사 932억원(연평균 155억원)이었고, 그 이후 35개사 1,445억원(연평균 481억원)의 투자가 실현되어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 이후 연평균 326억원(2.1배) 증가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살펴보면 2010년 6월까지 고용인원은 연평균 185명이었으나 그 이후 연평균 277명으로 지난 3년 간 연평균 92명(49%) 증가하였

다. 지방세 수입을 살펴보면 2010년 6월까지 지방세 수입 증대는 연 3억원이었으나 그 이후 연 10억원으로 지난 3년 간 연 7억원의 지방세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하였다.

토지가격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 1월에 도입된 토지비축제도를 살펴보면 2010년 6월까지 2개 지구 433천㎡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 이후 3개 지구 455천㎡의 토지를 매입하여 2013년 6월 현재 5개 지구 888천㎡의 토지가 비축되어 있다. 이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여 최근 애월읍 어음리에 랜드마크적 관광인프라 사업을 유치한 바 있다.

〈표 1〉 국내외 투자유치 성과

세부과제		2010년 6월 이전	2013년 6월 현재	증감(3년 간)
투자 진흥 지구	투자유치	17개 지구 6조 2,776억원	34개 지구 11조 2,556억원	4조 9,780억원 증가
	투자실현	9,731억원 (총 유치액의 15.5%)	3조 482억원 (총 유치액의 27.1%)	2조 751억원 증가
	일자리	915명 고용	2,206명 고용	1,291명 증가
	도내기업 참여	659개사 (3,335억원)	995개사(7,095억원)	336개사 증가 (3,760억원 증가)
영주권 제도		부동산투자 이민제 시행 (2010년 2월)	콘도 분양 (409세대, 2,657억원 계약)	지방세수 129억원(3년 간)
			F2 비자 발급 : 191명	
국외 투자 유치	외자유치	4개 사업 2조 4,786억원	14개 사업 5조 6,726억원	3조 1,940억원 증가
	유치실현	456억원	3,520억원	3,064억원 증가
	일자리	81명	199명	118명 증가
	지방세수	연 11억원	연 17억원	연 6억원 증가
국내 기업 유치	기업유치	20개사	55개사	35개 기업 증가
	투자실현	932억원	2,377억원	1,445억원 증가
	일자리	1,115명	1,947명	832명 증가
	지방세수	연 3억원	연 10억원	연 7억원 증가
토지 비축 제도	토지매입	2개 지구 433천㎡	5개 지구 888천㎡	3개 지구 455천㎡

III. 향후 개선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3년 간 투자진흥지구제도, 영주권 제도, 토지비축 제도, 국외 투자유치, 국내기업 유치 등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물론 현재 논의 중인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과제를 잘 디자인하여 도덕적 해이의 방지,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조속한 투자 실현,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주민 고용 확대를 통한 지역 내 파급효과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이 생산과 고용 창출의 근원이며, 부가가치의 창출자이며, 신성장 엔진의 발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실행하는 경제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5년 제주투자진흥제도의 시행 이후 지정된 총 34개 투자진흥지구 가운데 투자가 완료된 12개 지구와 일부 운영 중인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세금감면과 고용창출을 분석해 보면,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4조 6,578억원 중 실제로 투자된 사업비는 2조 1,747억원으로 계획 대비 46.7%를 기록하였으며, 감면액은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339억원과 부담금 46억원 등 총 385억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0.8%, 실제투자비 대비 1.8% 수준이다. 이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감면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당초 계획된 고용인원은 5,441명(도민 고용인원은 3,397명)이었으나 실제로 고용된 인원은 2,148명(도민은 1,564명으로 72.8%를 차지)으로 계획 대비 39%(도민은 46%)를 기록하였으며, 385억 감면에 따른 직접고용 2,148명의 10억원당 고용은 55.8명으로 제주지역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산업 내 취업유발계수인 10억원당 26.6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의 문제점은 적나라하게 파헤쳐져 제도의 효율성 극대화과 효과성 달성을 위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외에 기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주권 제도를 예를 든다면 일정 금액이 투자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격 및 영주권을 부여하는 현행 방식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주권은 부여하되 아랍에미리트(UAE)처럼 매년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수수료를 내고 영주권을 갱신하도록 하면 지방세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각종 조세 및 투자유치 관련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국내의 자본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서비스(before service) 및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를 통하여 잠재 투자자 및 기존 투자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기관의 서비스와 도민의 수용 태세 등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기업의 제주지역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제와 과감한 철폐가 우선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one-stop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포지티브 인센티브 시스템의 확대보다는 네거티브 인센티브 시스템의 대폭 철폐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제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순유입인구가 2009년까지는 매년 1,000 ~ 3,000명 정도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437명, 2011년 2,342명, 2012년 4,873명이 제주에 순유입이 되었고, 2013년에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여 5월말 현재 순유입인구는 3,401명으로 8월에 제주 인구가 6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외 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서 제주 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